

Vinnie Colaiuta의 즉흥 연주 스타일 분석 : Drum Solo 중심으로-

조규원,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jo9won@hanmail.net.com,
*entheos@chungwoon.ac.kr

Analysis of Vinnie Colaiuta's Improvisational Playing Style: Focused on Drum Solos -

Kyu Won Jo,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비니 콜라이우타(Vinnie Colaiuta)의 드럼 솔로가 지닌 즉흥성과 구조적 정교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Rand Waldman의 앨범 UnReel에 수록된 'The Jetsons'이며, 이 곡의 드럼 솔로는 리듬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콜라이우타의 드러밍 안에서 나타나는 리듬 분할, 악센트 처리, 손발의 독립성, 3연음과 6연음의 그룹화, 폴리리듬 등의 기법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단순히 자유롭게 들리는 즉흥 연주가 사실상 철저하게 계산된 리듬 구성 위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실천기반연구(Practice-Based Research) 방식으로 직접 연습하고 재현하며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연주자의 직관과 이론적 이해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조명하고, 리듬 표현력 향상과 창작·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서론

현대 재즈 드러밍은 단순한 리듬 반주를 넘어, 독립적인 음악적 언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비니 콜라이우타(Vinnie Colaiuta)는 정교한 손발 독립성과 복잡한 리듬 구조를 통해 드러밍의 예술적 가능성을 극대화한 인물로 평가받는다[4]. 그의 연주는 자유로운 즉흥성과 체계적인 구조가 조화를 이루며 독창적인 리듬 세계를 형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콜라이우타가 참여한 Rand Waldman의 앨범 UnReel 수록곡 'The Jetsons'의 드럼 솔로를 중심으로, 리듬 구성과 악센트 처리, 폴리리듬, 그리고 시간 구조의 전이와 같은 음악적 요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콜라이우타의 연주를 단순한 즉흥 표현이 아닌 구조적이고 의도된 리듬 전략으로 조망함으로써, 고도로 조직된 즉흥성의 실체를 실천기반연구(Practice-Based Research) 방식으로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드러머의 음악적 사고와 창작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2. 본론

본 논문에서는 Rand Waldman의 Unreel 앨범의 'The Jetsons' 곡의 드럼솔로 특징을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2.1 The Jetsons 의 구조와특징

곡의 형식과 진행은 다음<표 1>과 같다.

[표 1] 구조

섹션	마디 수	내용	비고
Intro	17마디	인트로	테마 도입
A 파트	45마디 × 2	메인 테마 / 솔로 진행	1회: 피아노 솔로, 2회: 색소폰 솔로
C 파트	58마디	드럼 솔로	즉흥 연주 하이라이트
D 파트	78마디	아웃트로 테마	마무리 구간

'The Jetsons'는 재즈와 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복잡하면서도 세련된 음악적 요소들이 잘 결합된 곡이다. 이 곡은 리듬과 화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비니의 중요한 역할을 통해 더욱 다채롭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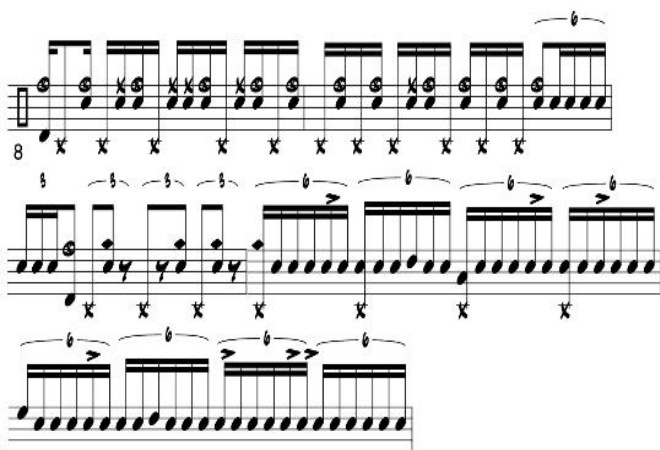
풍성한 음악적 깊이를 더한다[5]. 특히, 곡 중간중간 리듬이 변하는 부분은 음악적 긴장감을 더하며, 곡의 동적인 요소를 강조한다. 또한, 비니는 곡의 분위기와 전개에 맞춰 리듬을 조절하며, 변화하는 템포와 함께 곡의 감정적 여정을 강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2 The Jetsons 의 DrumSolo 분석



[그림 1] The Jetsons 의 DrumSolo 1-7마디

1-7마디의 드럼 솔로는 킥과 스네어의 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초기 구간에서 연주자의 그루브 감각과 사지 독립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히 3마디부터는 빅밴드 색션의 브라스 히트나 리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악센트 플레이가 등장하면서, 드럼 솔로가 단독적인 표현을 넘어 앙상블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과정은 연주자의 즉흥성이 단순한 개인적 표현이 아니라, 구조적 맥락 안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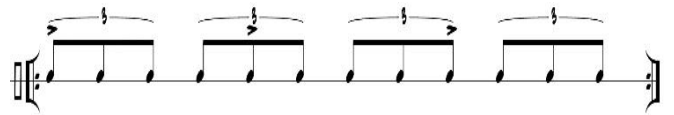


[그림 2] The Jetsons 의 DrumSolo 8-12마디

8마디 이후에는 원발 하이햇의 오픈-다운 동작과 더불어 킥과 스네어를 조합한 컴비네이션 패턴이 긴장감을 형성한다. 이 구간은 양발 독립성과 텍스처 구성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11마디에서는 6연음을 4개 단위로 묶어 악센트를 배치하며, 2박3연(2-over-3)유니즌 구간을 형성한다. 이는 리듬 해체적이면서도 구조적 일체감을 동시에 전달하는 클라이맥스 역할을 한다. 이 구간이 더욱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이유는, 원발 하이햇 오픈을 첫 박에 고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4개 음 단위로 묶인 연음을 전개하기 때문이다[2].

이러한 구성은 기존의 리듬 패턴과는 다른 신선한 리듬감을 제공한다. 특히 4개씩 묶인 연음이 끝난 이후 남은 한 박을 적절한 필인(Fill-in)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리듬의 긴장과 해소 사이에 자연스러운 흐름과 안정감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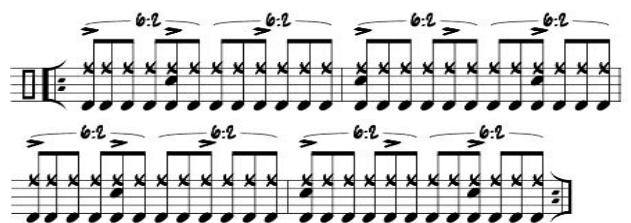


[그림 3] 3연음의 4번째 악센트

그림 3은 3연음 위에 제4음에 악센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리듬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폴리리듬의 기초적인 형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3연음 내부에서 비규칙적인 악센트 패턴을 통해 새로운 리듬 층을 생성한다. 이러한 방식은 3연음의 첫 박에 악센트를 4회 반복하는 동안, 4개 단위로 묶인 악센트 패턴에서는 단 3번의 악센트만 형성된다.

이처럼 본래 마디에서 4개의 악센트가 진행되는 동안 새롭게 도출된 악센트는 3회만 발생함으로써, 두 리듬 구조 간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이 결과로, 악센트는 반복될수록 점차 본래의 박자 구조에서 밀려나게 되며, 청자에게는 마치 템포가 느려지는 듯한 착시적 리듬 감각이 형성된다. 이는 리듬 안에서 ‘이동하는 그루브’ 혹은 ‘퍼셉션의 전이’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3].



[그림 4] 6연음을 두 개씩 묶은 패턴

그림 4는 킥, 하이햇, 스네어만을 사용하여 3박 안에서 4연음 기

반의 리듬 패턴을 구성해 보았다. 이 패턴은 4마디 동안 진행되며, 3박자의 리듬 패턴은 4번 반복되는 반면, 4연음으로 형성된 16비트 느낌의 비트는 약 두 마디 반 동안 진행된다.

이러한 현상은 3연음 안에서의 4번째 음에 악센트를 주는 방식에 기인한다. 즉, 일정한 3박자 흐름 속에서 비정상적 위치에 반복적으로 악센트를 배치함으로써, 리듬 안에 새로운 시간 구조와 흐름을 생성하게 된다[1].

이는 단순한 단일 악센트 표현에서 느껴지는 폴리리듬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만들어낸다. 리듬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며, 듣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시간적 감각과 리듬적 긴장감을 경험하게 만든다.

3. 결론

본 연구는 드러머 Vinnie Colaiuta의 드럼 솔로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즉흥성과 정교한 구조 사이의 균형을 탐구하였다. 특히 그의 연주에서 나타나는 리듬 분할, 악센트 처리, 손발의 독립성, 모티브의 전개 방식 등을 분석하고, 이를 실천기반연구 방식으로 연습하고 재현함으로써, 겉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이는 즉흥성이 실상은 고도로 조직된 리듬 구조 위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Jetsons’의 드럼 솔로 분석을 통해, 3연음 위에 4번째 음에 악센트를 주는 방식, 6연음의 그룹화, 그리고 다양한 리듬의 중첩과 전이를 통한 ‘이동하는 그루브’의 형성 등은 연주자가 리듬 내부의 시간 구조를 해체하고 재조합함으로써 청자에게 새로운 리듬적 지각을 제공하는 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폴리리듬의 개념을 넘어, 연주자의 음악적 의도와 구조적 감각이 결합된 창조적 리듬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석과 실연의 통합은 드러머가 어떻게 자유와 질서 사이를 오가며 고유한 음악적 언어를 형성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실천기반 접근법이 연주자의 직관과 분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주며, 향후 창작 및 교육 현장에서 리듬 표현력의 심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참고문헌

- [1] The UnReel Drum Book Alfred Music 12월 2003년
- [2] BETOND BOP DRUMMING Alfred Music 2월 1997년
- [3] Mark C.cridley 재즈총론 삼호ETM 1월 2002년
- [4] <https://en.wikipedia.org>
- [5] <https://www.allmusic.com>